

‘창단 첫 3연승’ 페퍼저축은행, 전 구단 상대 승리 도전

오늘 광주서 흥국생명 과 맞대결 승리 시 또 하나의 새역사 달성 최근 박사랑·염어르형 활약 주목 박정아·이한비·테일러 조합 위력

올 시즌 장소연 감독 체제로 ‘만년 꼴찌’에서 ‘고춧가루 부대’로 탈바꿈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탈꼴찌를 넘어 봄 배구까지 꿈꾸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꺾고 창단 첫 3연승을 달린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은 ‘우승 후보’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하는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 구단 상대 승리와 4연승을 노린다.

페퍼저축은행은 16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3차전을 치른다.

최근 페퍼저축은행은 심상치 않은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풀세트 접전 끝에 꺾으며 분위기를 반전한 뒤 후반기 들어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현대건설을 연파하며 창단 첫 3연승을 장식했다.

3연승을 달린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8승 12패(승점 24)를 기록, 봄 배구권도 바짝 추격하고 나섰다. 5위를 유지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4위 IBK기업은행(11승 9패·승점 33)을 9점 차로 쫓고 있다.

단일 시즌 최다 승리와 승점 기록은 이날이 늘려가고 있다. 승리를 거듭하며 종전 기록인 5승(2022-2023시즌·2023-2024시즌)과 17점(2023-2024시즌)을 훌쩍 넘어섰다.

3연승 기간 중 지난 시즌 우승 팀인 현대건설을 상대로만 두 차례 승리를 챙겼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16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3차전을 치른다.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지난 12일 현대건설과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대건설은 김다인과 이다현, 정지윤, 김연경, 양효진, 황연주, 고예림 등 전현직 국가대표를 대거 보유한 명실상부한 최강 전력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세트 이원정과 미들 블로커 하혜진이 부상 이탈했음에도 백업 세트 박사랑과 미들 블로커 염어르형이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주장인 박정아와 이한비, 테일러 프리카노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도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다. 특히 3연승을 완성한 지난 12일 맞대결

에서는 세트 스코어 2-1로 앞선 4세트 막바지 22-24로 뒤지며 풀세트 위기에 놓였지만 테일러의 연속 득점으로 듀스로 향한 뒤 이한비의 서브에이스와 박정아의 블로킹으로 경기를 끝내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고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 시즌 15승 5패(승점 45)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앞선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페퍼저축은행에게 패배를 안겼

다. 흥국생명은 투트쿠 부르주의 부상으로 마르타 마테이코가 임시 합류해 적응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나 김연경이 외국인 선수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김다인과 김수지, 박혜진, 박수연 등 전현직 국가대표들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맞트레이드로 유니폼을 바꾼 이고은의 존재도 변수다. 이고은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페퍼저축은행의 주전 세터로 활약했기

에 선수들의 장단점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얼굴인 테일러와 한다혜, 장위, 이에림이 활로를 찾아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이 흥국생명을 꺾는다면 창단 첫 4연승과 함께 IBK기업은행과 격차를 6-7점으로 줄이게 된다. 이후 하위권인 GS칼텍스 서울Kixx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연달아 만나는 만큼 흥국생명을 잡는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탁구 전설’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

417표 획득... 이기흥 3선 저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기흥 제 40·41대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저지에 성공하며 체육계의 새로운 리더가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회장이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탁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여섯 명이 출마했다.

선거인 2244명 중 1209명이 참여해 투표율 53.88%를 기록한 가운데 유 전 회장은 가장 많은 417표(득표율 34.49%)를 얻었다. 이 회장이 379표, 강 회장이 216표, 강 명예교수가 120표, 오 전 회장이 59표, 김 전 사무처장이 15표로 뒤를 이었다.

한국 탁구 레전드인 유 전 회장은 현역 시절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 금메달과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단체 동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 은메달 등을 수확한 바 있다.

은퇴 이후에는 삼성생명 탁구단 코치와 한국 탁구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경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감을 밝히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스

힘을 쌓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과 대한탁구협회 이사, 대한탁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도 축적했다.

대한탁구협회를 이끌며 2024 런던 올림픽 혼합 복식과 여자 단체전 동메달의 밑바탕을 마련, 한국 탁구의 부활을 이끈 유 전 회장은 오는 2029년 2월까지 대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한규빈 기자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14일 구단 사무국에서 희망숲! 나눔골! 기부챌린지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희망숲 나눔골 기부챌린지’ 전달식

5개 기업서 700만원 쾌척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14일 구단 사무국에서 ‘희망숲! 나눔골! 기부챌린지’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부챌린지는 전남드래곤즈와 지역 기업들이 함께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으로 흥경기 1득점 당 10만원이 적립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규홍 전남드래곤즈 대표이사과 한창리 ㈜한창산업 대표이

사, 이상호 대아산업(주) 대표이사, 전민호 ㈜서울산업 대표이사, 정현명 ㈜메가플랜텍 대표이사, 배영진 그러소 대표이사,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기부챌린지에 동참한 ㈜한창산업과 대아산업(주), ㈜서울산업, ㈜메가플랜텍은 23라운드, 그러소는 25라운드부터 기부금을 적립했다. 이에 따라 ㈜한창산업과 대아산업(주), ㈜서울산업, ㈜메가플랜텍은 각각 150만원, 그러소는 100만원을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전남본부에 전달했다.

한창리 ㈜한창산업 대표이사는 “전남드래곤즈와 함께 기부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우리가 전달한 기부금이 전남 지역 아동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본부장은 “전남드래곤즈의 기부챌린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규빈 기자